

큰스님 수행한담

참회로 녹이세요



서울 서대문구 법문사에서 열린 제1회 한국불교 태고종 중진지도자 김승희 기념사건. 맨 뒷줄 왼쪽에서 여섯번째가 일음스님.

눈물을 흘리면서 일체가 내 자신이 지은 업장때문임을 참회하고 성불의 인연 짓기를 발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기도중에 하얀 소복을 입은 부인이 찾아왔는데 안면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 사채로 인도하니 "요즈음 스님께서 많이 편찮으시더니 어떻습니까?"고 안부를 물어요. "아직 많이 아프네요"고 하니 부인이 "제가 아픈 곳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라고 해 아픈 곳을 보여주었더니 부인은 손으로 환부를 만지며 약봉지를 꺼내고는 먹기를 권해요. 꼭꼭 씹어서 먹었더니 부인은 "스님, 다음에 또 들리겠습니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갑자기 찬바람이 몸을 감싸는 것 같아

문입니다. 증상들이 괴로운 까닭은 분별 심때문입니다. "내가 옳고 네가 그르다" "누구는 잘하는데 나는 왜 못살까" "내가 이모양 이꼴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등등. 분별심으로부터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의 종자가 싹트게 되고 고통이 뿌리 내리게 되는 거지요. 분수이상으로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됩니다. 재물이나 권력에 눈이 멀어 법도를 따르지 않고 주변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무서운 도리입니다.

대구 용천사에 우익이라는 노장스님이 한 분 있었는데 배운 바가 없을뿐 아니라 성질이 고약하여 대중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 하루는 병을 얻게

마음이 느슨해지면 그 틈을 삼독이란 도둑이 침범해요 늘 깨어있어야 도둑을 막지요

는데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사람을 불러 툽으로 뽑을 잘라내는데 그 고통이 말도 못해요. 고통때문에 지르는 비명소리가 소가 우는 듯하여 듣는 사람들이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조계종 사태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들이 수행은 하지않고 만고에 죄를 짓고 있어요. 진실로 마음을 닦는 공부만을 하기에 시간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자동차가 낡으면 못쓰게 되듯 사람도 늙으면 마찬가지로. 공부 하고싶은 마음은 굴뚝같아도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니 후회막급이요,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젊은 혈기들을 수행쪽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말법시대에는 마강법약(魔障法藥)이니 마음을 다잡아 수행하지 않으면 차츰 그릇된 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극락과 지옥은 마음안에 있습니다.

수행자는 모름지기 깨달음을 얻지못하여 무명(無明)속에 있을 때 가장 큰 지옥이라는 생각을 해야합니다. 생사를 헤탈 하지 못한 수행자의 마음은 늘 편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생사가 돌이 아니라고 큰소리칠 것이 아니라 직접

以心傳心 傳法信(이심전심 전법신) 晝耕夜讀 勤學解(주경야독 근학해) 時時刻刻 不怠行(시시각각 불신행) 依理修行 果自證(의리수행 과자증)

"이심전심 믿음으로 정법을 전하고, 주경야독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며 시시각각 수행합이 힘없이 이어지면, 본래자리 나타나서 저절로 성불하리"

우리 태고종에서는 전통적으로 금까마귀와 옥토끼를 수놓은 홍가시(紅袈裟)를 수하는데 여기에는 일화가 있습니다.

과거 신라나 고려시대 조사스님들의 영정을 살펴보면 가사색깔이 붉은 색임을 확인할수 있는데 붉은 색은 탁한 색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꽃이 더러운 물 속에서 오염되지 않듯 세상이 나를 더럽힐수 없다'는 교리상의 의미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금까마귀와 옥토끼는 일월광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지요.

옛날 전라남도 남원읍 교룡산에 교룡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중창을 위해 가사불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원읍에 대목이라는 아전이 살고 있었는데 성질이 아주 교조교조하고 불교를 몹시 멸시했습니다. 어느날 절쟁이가 왔기로 부인이 신년운수를 물어보았더니 남원은 물이 빠져죽고 부인은 화살에 맞아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부인이 교룡사 스님께 대책을 물었더니 마침 가사불사를 시작하였으니 동참하고 날마다 부처님께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회향하는 날 부인이 남편 물레 교룡사로 떠났는데 이를 안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뿔뿔아났습니다. 자신을 거역한 부인을 죽일 작정으로 활을 두 번이나 쏘아 맞추었는데도 요행히 부인은 죽지 않았어요. 절에 당도하여 스님께 드릴 가사를 꺼내니 그 속에서 화살촉 두 개가 나왔습니다. 가사를 펴 보니 까 두군데 구멍이 나 있었어요. 이를 본 대목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님과 부인에게 참회했습니다. 대중들은 일월과 같이 부처님의 영험을 증명한 활촉 구멍에다 금까마귀와 옥토끼를 수놓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일월광을 붙인 가사는 인도 중국 일본에는 없고 오직 우리나라에만 전해지고 태고종에서 계승하고 있습니다.

정리=이윤호 기자 (yhllee@buddhopia.com)

나의 수행일기



김필성

(능인의사회 회장)

"좋은 직업을 가지셨네요! 돈 많이 버시겠어요!"

초면에 인사를 나누고 나면 간혹 이렇게 첫인사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 이따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위치, 특히 치과사라는 직업에 대한 선입견의 단적인 예가 아닐까? 미국 생활을 오래했고, 의사이고, 젊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대체로 "주말에는 교회에 가시느라 바쁘시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아뇨, 전 절에 가는데요"라는 대답을 들으면 신기하다는 듯이 다시 쳐다보곤 한다.

불교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가정환경이 누군가에게 배울 수 있는 직업, 거기에 비교적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의 내게 치과사만큼 적당한 직업이 생각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첫인사부터 날 면구스럽게 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구차한 해명이 될런지 모르겠다.

문에 내가 불자이면서 의사라는 사실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

사실 다른 종교들은 우리 불교에 비해 아주 적은 인원으로라도 많은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 불교는 너무 사회와 동떨어진 느낌이 가끔은 아쉬울 때도 있어 능인의사회가 더욱 더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능인선원과의 인연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지금의 아내를 만나면서 부터다. 부부가 한 몸으로 하나의 종교를 믿는 것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첫단추라는데 가족모두의 의견이 모아져, 아내와 함께 능인선원 불교대학을 나가기 시작했다. 힘든 일과를 마치고 일주일에 두번 아내와 데이트반, 공부반으로 다닌 불교대학에서 경전공부를 하면서 종교인의 도리와 함께 부부로서의 도리도 새삼 깨우치게 되었다.

아내와 함께 불교대학서 경전공부 환자의 고통 느끼는 순간 약사보살 돼

치료가 끝난 뒤 이제야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다.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는 니, 고통없이 밤을 보냈노라며 감사해하는 환자들을 보고있노라면 내가 내 머리를 두어번 들어내고 싶을 때가 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진심어린 정성만 좋은 전력이 없다는 삶의 지혜를 배운다.



처음 강의 들기 시작할 때 어려우면 어떡하냐 걱정 많이 했었다. 다행히 지공스님의 강의는 과학적이고 아주 쉽게 이해되었다. 사실 불교대학을 다니기 전 아내와 나는 말다툼도 많았고, 특히 내가 아내에게 요구하

는 부분이 많았다. 어느날엔가 지공스님의 강의중 "내가 상대에게 못마땅해 하고 원하는 것이 있을때 상대를 탓하지 말고 나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라"는 구절이 우리 두사람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웃었다. 그 후 그 말씀대로 행하니 모든 것이 너무도 편안해졌다.

그 가르침은 지금도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잊지않고 있다. 능인선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안에서의 시간은 그날 배운 경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생활 속에서의 실천방법, 의 사로서 불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 또 부부간의 신뢰를 다지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기억된다. 물론 아직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불교의 이념에 따라 수행하고 행하는 불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

"아무리 옳은 일도 순리에 따라해야지 욕심 부리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정신을 차려보니 방안이 아니라 법당에 앉아서 추운줄도 모른채 잠시 삼매에 빠져있었더랴구요. 아픈뎀 몸이 어느새 말끔하고 머리가 맑아요. 돌아서서 법당을 둘러보니 부처님뒤 후불탱화에 그려진 백의관음께서 빙그레 미소짓고 있었 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비몽사몽 간에 본 그 부인의 모습이 바로 백의관 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일이 있던 뒤로 차츰 병이 나아져서 예전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내 체험을 얘기했지만 기도의 힘은 상상이상으로 큼니다. 자신의 잘못을 참회 하거나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수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에는 '나'라는 아상이 개입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상을 제거시켜주기 때

되었는데 돈이 없어 외상으로 약을 지어 먹었지요. 그런데 병은 차도가 없고 약값 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지요. 밀린 약값 때문에 대중공의를 열었으나 뽀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자 우익스님은 종각의 기왓장을 벗겨 팔자고 제의했어요. 말이나 되는 소랍니까! 일언지하에 거절당 하자 양심을 품게된 우익스님은 그날밤 종각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 그후 우익 스님의 행패는 날로 심해졌고 견디다 못한 여러 스님들이 절을 떠나버리자 우익 스님 혼자 남게 되었는데 자기멋대로 법당의 기왓장을 벗겨 팔아버렸다고 합니 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영당이에 딱딱한 불이 돌기 시작했는데 자라나면서 거꾸로 살을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우익 스님은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얼드러 있

경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면에서 불교는 바로 자신이 깨달음을 얻기위한 수행방법입니다. 부처나 보살 혹은 아라한이 주는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출가를 하던 하지 않던, 직책이 높든 낮든, 돈이 많은 가난하던 깨달음을 얻는 자가 불교의 정수(精髓)를 마신 것이지요. 80평생을 돌이켜보아도 건강을 못하면 회한만이 남을 따릅니다.

동해바다로 흐르는 물은 백천번 굽이 쳐도 결국 동해바다에 이르듯, 깨달음을 이루기로 굳게 서원을 세운 수행자는 수많은 좌절을 겪는다 할지라도 마침내 구경처에 도달합니다. 초발심이 번갈아가 다. 신(信)해(解)행(行)증(證) 4과(果)로써 부지런히 정진하십시오.

현대불교 '98년도 합본 제4집 발간 안내

삼보에 귀의하합니다. 21세기 희망찬 내일 불교의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현대불교신문」에서 '98년도 합본 제4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어느 해 보다 더욱 더 다사다난했던 '98년도의 불교계 모든 소식들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쉽게 친견하기 어려운 큰스님들의 법문은 물론 불자들에게 유익한 생활의 정보와 지혜의 내용을 함께 모았습니다. 포교와 수행의 지침이 될 「현대불교신문」을 보관하시고자 하시는 여러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위해 '98년 1월 1일자(157호)부터 12월 30일자(204호)까지 총 48호 1,172페이지로 불교를 쉽게 배우고자 하시는 불자님들께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3집('97년판)과 제4집('98년판)을 한정 판매하오니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법보시 하실 분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자님 계신 곳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구 입 안 내
○ 합본 제4집 : 1998년 1월 1일자(157호)~1998년 12월 30일자(204호) 총48호
▶ 1,172페이지. 신문판형(크기: 40cm x 55cm)
○ 구입 가격 : 1권 6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제3.4집 : 11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 '99.1월에 신청하시는 현대불교신문 구독자에게는 발송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2747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우체국 010041-025524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문의 및 신청 : 경영관리국 기획관리부(담당자 이신정)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 신속한 발송을 위하여 입금 후 꼭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탐사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탐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광주 마이산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